

고호도

오쿠노인(奥之院)에 나란히 있는 작은 두 신사로서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을 모시고 있습니다. 오른쪽이 오토텐, 왼쪽이 와카텐입니다. 오토텐은 지혜의 신인 부동명왕의 화신이며, 와카텐은 지상의 보물의 수호신인 비사문천의 화신입니다. 난폭한 수호신으로 알려진 이 둘은 쇼쿠 대사(910~1007)가 966년에 엔교지 절을 건립하고 쇼샤잔 산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을 때 스님을 도왔다고 합니다. 그 이후 오토텐과 와카텐은 엔교지 절의 수호신으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원의 전승과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 엔교지 절의 연간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18일에 열리는,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전(슈쇼에)입니다. 이 특별한 날에는 푸른 도깨비의 모습을 한 오토텐과 붉은 도깨비의 모습을 한 와카텐을 나타내는 가면을 쓴 신자들이 사원 부지 내를 어지럽게 춤추며 돌아다니고, 횃불을 휘두르고, 종을 울립니다.

엄밀히 말하면 이 두 신사는 신들을 모시는 건물인 ‘본전(本殿)’으로 간주됩니다. 신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참배자가 공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는 ‘배전(拜殿)’은 본전 앞에 딸려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는 배전이 분리되어 중정을 끼고 이 두 본전과 마주보고 있습니다.